



AP&P6 → SPECIAL BOOK CURATION

2019 READ PUBLIC ART IN BOOKS

특별 북큐레이션 → 책으로 공공예술 읽기

주제 서가 1:
물과 함께 살아가기

안양천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고 맑은 물에서 헤엄 치며 놀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광명과 안양, 군포로 공장들이 넘어오면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에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안양은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는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변모해 왔다.

이처럼, 인간은 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물은 식량을 조달해 주는 삶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산업을 일구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 또 물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내어 주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물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의 유동성에서 기인한다. 물은 전지구적 물류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우리 삶에 침투한 수많은 사물과 상품은 넓고 넓은 물의 세계를 지나온다. 물론 물이 희망과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향로만으로 우리를 안내하지는 않는다. 난민,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물은 인류가 마주한 큰 문제들이 집적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공간이자 노예를 나르는 길이었던 바다, 수없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 그로 인해 다가올 디스토피아와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연대와 공동의 움직임. 이에 많은 예술가들

은 다양한 관점으로 물의 세계를 관찰하고 사유해왔다. 그들 각자의 질문은 저마다의 형태로 예술 작품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공공미술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첫 번째 북 큐레이션은 물을 경유하여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보았다. 도시에 놓인 호수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의 도록 <Swim City>, 전지구적 물류 시스템을 군사학의 관점에서 파헤친 데보라 코웬의 연구서 <로지스틱스: 전지구적 물류의 치명적 폭력과 죽음의 삶>,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슬로베니아의 미술 작가 말레티자 포트르츠의 <Florestania>,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노점상들과 청계천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최인기의 사진집 <청계천 사람들, 삶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청계천>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서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은 늘 새로운 장소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를 연결시킨다. 물이라는 표면을 따라서, 혹은 그것을 가로질러 만들어지는 새로운 서사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공간에 대해서 함께 상상해 보자.

* 특별 북 큐레이션은 공공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공공예술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질문하며 하나의 주제를 마련하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제 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주제 서가가 마련됩니다.



APAP6 → SPECIAL BOOK CURATION

2019

READ PUBLIC ART IN BOOKS

특별 북큐레이션 → 책으로 공공예술 읽기

Theme Cabinet 1:
Living with Water

Anyangcheon stream was clean enough for kids to swim in water and to build sand castles until the 1950s. However, it started to be severely polluted in the 1960s, when the factories came to Gwangmyeong, Anyang, and Gunpo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1999, Anyang city has tried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and to preserve the waterfront environment, and the city has been developed and changed in a balanced manner.

As such, human beings have lived in diverse communities around water. Water can be a place of life for food, or an economic center for small and large industries. In addition,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surrounding water gives time for relaxation and leisure, and attracts people. However, the reason why water is significant to us today stems from its fluidity, rather than other reasons. Water is the core condition of global logistics, and many objects and goods that penetrate our lives pass through a wide world of water. Of course, water does not lead us to a route that offers bright hope and prospects. It is also a place where human problems are accumulated such as refuge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ssues. The sea has been a historic place where many of wars happened and a road for slavery. Countless development has happened in the rivers. It shows dystopia and the other solidarity and joint movements to face it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many artists have observed and thought about the

world of water from various perspectives. Each of their questions becomes a work of art in their own form and it shows an aspect of public art dealing with our common problems.

The first special book curation gathers various voices to change the way of looking at space through water. It presents <Swim City>, an exhibition catalogue interprets a lake in the city in architectural way, <The Deadly Life of Logistics: Mapping Violence in Global Trade>, Deborah Cowen's research on the global logistic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studies, <Florestania> written by Slovenian artist Marjetica Potrc after working on art project with Aboriginal Communities, and Choi In-gi's photo collection <People of the Cheonggye stream : place of life and struggle> which captures street vendors and Cheonggye stream people who were forced to migrate due to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ter always flows to new places, creating numerous stories and connecting them in the process. Let's imagine together the new narratives created along or across the surface of water, and the ever-changing space with that.

* Special book curation examines public art in the past and today and asks what public art should be in the future. It prepares a topic, and covers various categories such as humanities, society, science, technology, art, literature, and history with a selection of books. During the 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there will be three rounds of special book curation section in total with different topics.